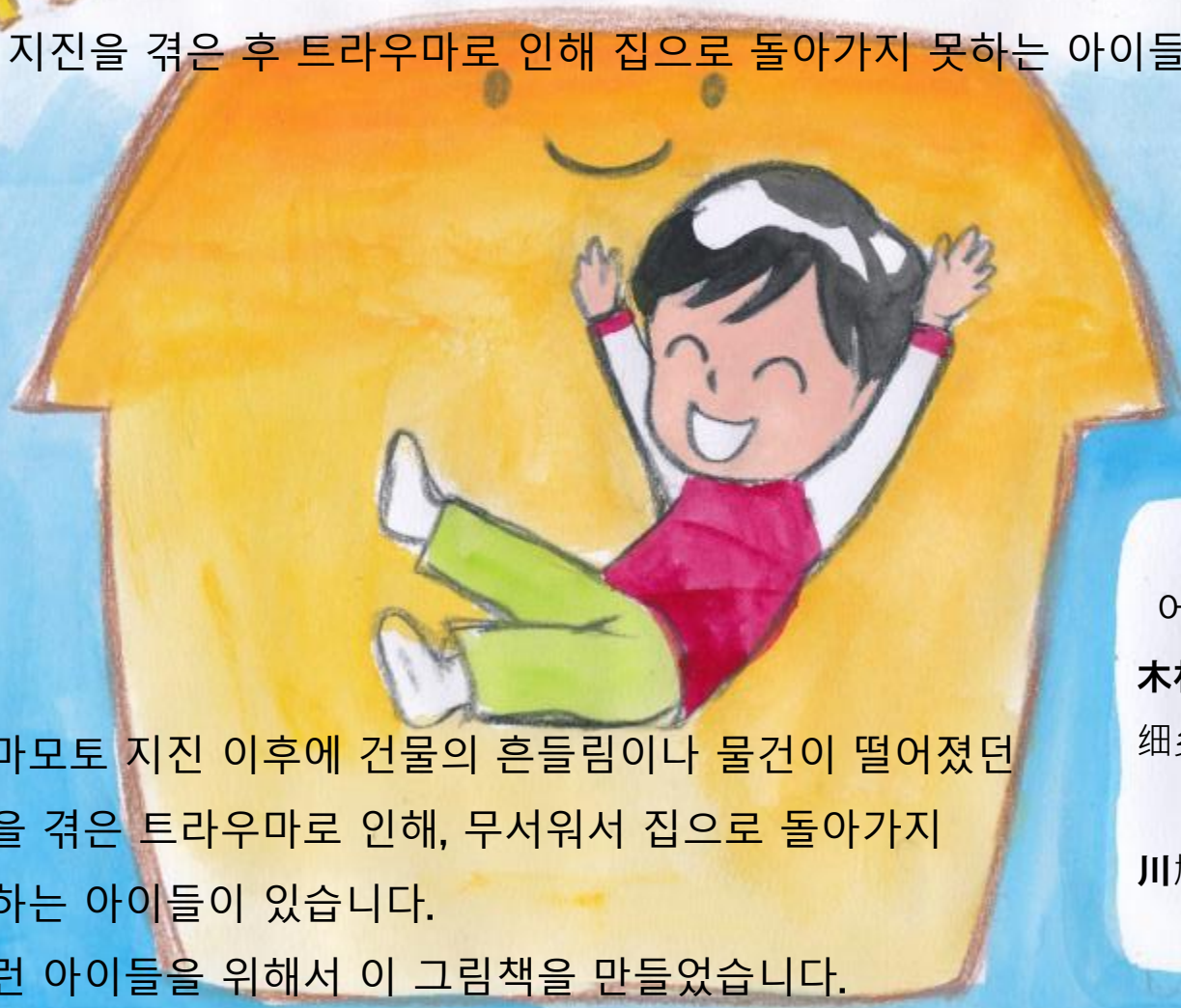


やっぱりおうちがいいな

~ 지진을 겪은 후 트라우마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건물의 흔들림이나 물건이 떨어진 것을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부모님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마모토시

어린이 발달 지원 센터

木村重美(기무라 시게미)

细乡幸美(사이고 유키미)

작

川鳩久美(가와시마 쿠미)

그림

「아~~~! 지진이다~~!」

아키라는 쿠미 누나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피했어요.





다같이 대피소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체육관에
있었어요.

아키라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의
체육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깐 펄펄 울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자기로
했어요.



대피소에서 밥을 받고,
차 안에서 지내는 생활이 2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제 지진도 잠잠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집 현관앞까지 간 아키라는
지진 났을 때가 생각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집 안은 무서워」

라며 엄마에게 딱 붙어서 계속
울기만 해요.



쿠미 누나는 용기를 내어서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상시 보다 어질러져 있었지만,
아빠가 먼저 와서 정리를 해 주셔서
거의 대부분이 원래대로 되어 있었어요.



쿠미는
쿠마몽 인형을 가지고 와서,
「봐봐, 쿠마몽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며 아키라에게 보여 주었어요.



아키라도
용기를 내,
한 발 한 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쿠마몽,
장남감기차, 미니카
등등
장난감들이
다같이 박수치며
맞이해 주었어요.



아키라는
바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이 시작했어요.

「역시 집이 제일
재밌어!」



그 날 저녁이 되었어요.

아키라는 밤이 될수록
지진 때가 떠올라 걱정이 되어서,
결국엔 울어버렸어요.
아빠는 떨어질 것 같은 물건을
정리해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는,

「또 지진이 나면 여기에 숨어.
다같이 도망갈 거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고 꼭 안아 주셨어요.

그 날,
아빠, 엄마,
쿠미누나, 아키라는
함께 이불을 펴고
베개를 나란히
놓고 다같이 잤어요.



다음 날,
「역시 집이 좋아.」
라며 아키라가 속삭였어요.



때때로 지구가
재채기를 해요.
아키라는 말했어요.

「지구야
어서 나아야 해」



~ 가족분들께 ~

아이들은 또 집에서 지진이 나는 것은 아닐까하고 걱정이 되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한 한 지진이 나기 전의 생활 리듬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가지고 놀던 장난감 등을 가까이에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3. 다시 지진이 났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알려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피할 곳을 알려주고, 다음에 해야할 것을 알려주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꼭 도와줄 것이니 괜찮다고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주의) 집으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인하신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0熊本県くまモン#熊本支援

번역협력: 오사카대학 쿠마모토지진 다언어재해정보사이트
효고현타이시고등학교 한국어강사
양 희정